

한국사 입문

①

한국사의 시작과 고대국가의 성립

- 1차시. 한국사의 시작과 국가 형성
- 2차시. 한국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
- 3차시.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
- 4차시.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
- 5차시. 삼국과 가야의 문화
- 6차시.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로

01

1. 한국사의 시작과 고대국가의 성립

학습 목표

- 선사시대에서 삼국가야에 이르는 한국 고대사의 전개과정을 계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여러 나라, 삼국과 가야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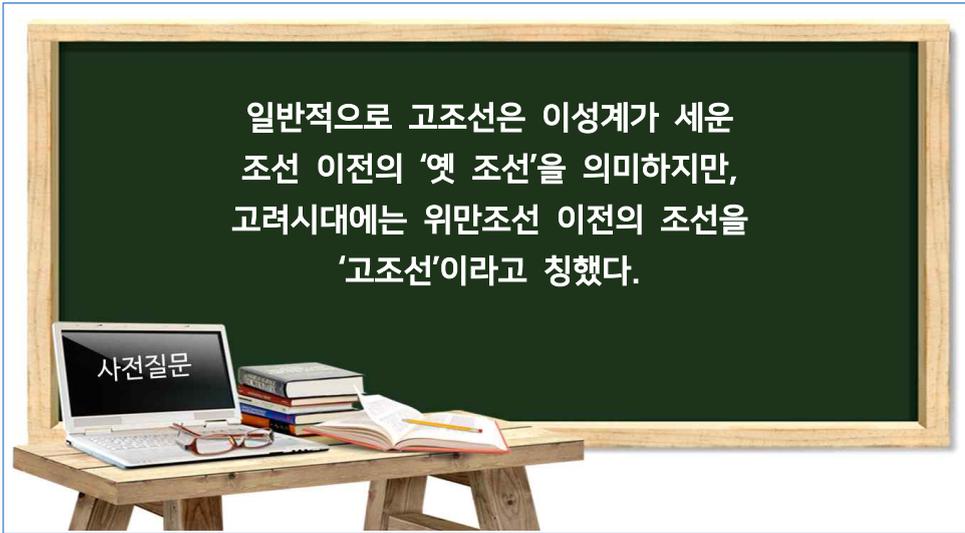
1.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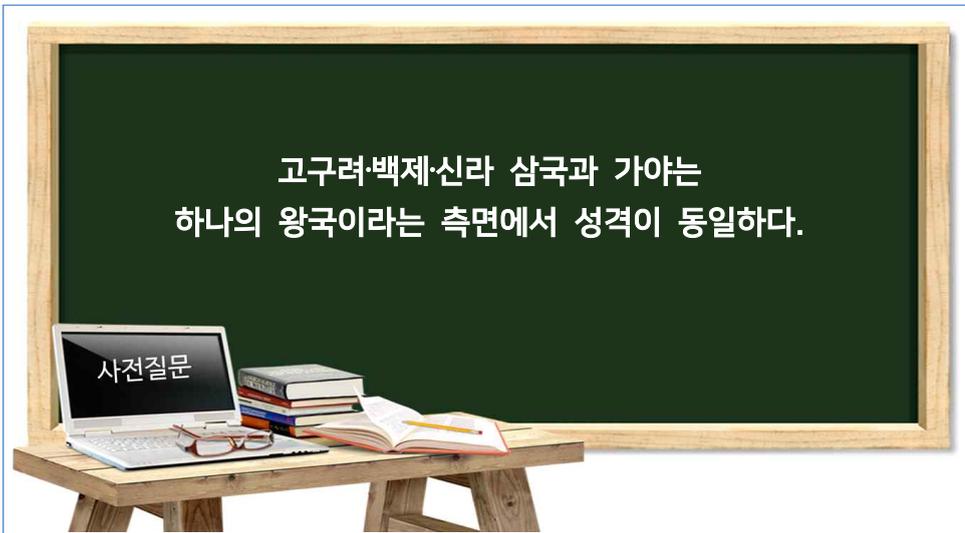
위 사진 속 장소는 천년왕조 신라(기원전57~935)의 기원을 간직한 경주 나정(羅井)이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건국된 해는 기원전 57년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조선(朝鮮, 고조선)의 유민(遺民)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여섯 개의 촌(村)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고허촌(高墟村)의 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羅井)이라는 우물 옆의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소벌공이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큰 말이 하나 있었고, 이를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10여 세가 되자 6촌의 사람들은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이다.

신라가 탄생한 경주 땅에는 이미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고조선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신라는 경주 지역에 있던 여섯 개의 촌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 신라 건국설화는 고대국가의 성립이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한 나라 및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여러 정치 집단의 통합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본 강좌의 주된 목표는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고조선을 거쳐 삼국가야에 이르는 한국 고대사의 흐름을 앞뒤 시기와의 연관 속에서 계통적으로 살피는 데 있다. 근대 한국 경제는 1986년 이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의 환경에서 이후 3년 동안 연 12% 성장과 최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 준비하기



정답 (O)



정답 (X)

3. 학습하기

1) 한국 선사시대에서 삼국·가야에 이르는 역사의 계통적 이해

1주차에서는 우선 한국의 선사시대를 살펴보고, 이어서 고조선에서 초기 여러 나라를 거쳐 삼국과 가야가 성립발전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선사시대부터 삼국·가야에 이르는 한국 고대사의 흐름을 조망하고, 여러 세력 내지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논할 것이다

2)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

2차시에는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다룬다. 한국 선사시대의

시기구분은 유럽 선사고고학의 삼시대법(Three Age System)에 따른다. 즉, 기본적으로 석기청동기철기시대라는 시대구분에 의거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시대로 나뉜다. 구석기와 신석기시대 사이에 중석기시대를 넣기도 한다. 청동기시대 후반과 철기시대 초반이 겹치는 일정 기간은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에서 탄생한 삼시대법은 기본적으로 각 시대마다의 사용도구의 질적인 차이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토기 또한 중요한 시기구분의 기준이 된다. 예컨대 신석기시대는 무늬가 있는 유문토기(有文土器), 청동기시대는 무늬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무문토기(無文土器)가 표지적인 유물이다. 이러한 토기의 등장을 신석기청동기시대 상한(上限)의 기준점으로 잡는다. 2차시에서는 이상의 시기구분에 따라 한국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보고,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

3차시에서는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여러 나라’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과 기원전 3~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여러 정치세력, 즉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마한진한변한)을 말한다. 이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state)’로 보기 어려운 정치체도 포함된다. 부여나 고구려가 하나의 왕국임은 분명하지만, 옥저나 동예에는 국왕이 없어서 ‘국가’ 단계의 정치체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마한은 50여국,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삼한의 70여 국 중에는 다시 대국(大國)과 소국(小國)의 구분이 있었다. 특히 진변한의 소국은 인구가 6~700가(家)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규모의 정치체를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사기』 조선열전이나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 등에는 고조선의 역사와 중국 여러 나라의 관계가 전한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부여 이하 초기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민족지(民族誌)적 서술이 있다. 초기 여러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대체로 중국 사서에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3차시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삼국·가야의 성립과 발전

4차시에서는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다룬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백제·신라는 모두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되었다. 금관가야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기원후 1세기에 건국되었다. 이러한 건국연대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불확실지만, 적어도 기원 전후 무렵에는 이들 여러 나라가 성립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고구려는 주변 세력과의 잦은 전쟁을 통해 일찍부터 국가를 형성했다. 이후 중국 세력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한편, 옥저·동

예, 그리고 부여를 복속시키면서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4세기 후반~5세기에는 중국의 요동지방과 한반도 중남부로 진출하여 영역을 크게 넓혔다. 마한과 진한을 구성하는 일개 국에 불과했던 백제와 신라는 점차 주변세력을 복속시키면서 국가를 형성해나갔다. 백제는 4세기 후반, 신라는 6세기 중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변한에서도 김해 지역에 있던 금관가야(구야국)가 철 생산수출과 국제교역을 토대로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5세기 이후에는 고령 지역에 위치한 대가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4차시에서는 이러한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다룰 것이다.

5) 삼국·가야의 문화

5차시에서는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 다룬다.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한자문화를 받아들이고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라도 고구려 백제보다 늦지만 한자문화와 유교를 수용하였다. 삼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불교이다. 고구려백제는 4세기 후반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는 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사찰이나 석탑의 축조, 불상의 조성과 같은 불교 예술도 발달했다. 삼국은 도교의 신선사상도 받아들이는 등 여러 종교를 두루 신봉했다. 한편 삼국과 가야는 각기 특징적인 무덤을 만들었다. 고구려는 적석총(돌무지무덤)과 돌방무덤(석실봉토분/벽화고분포함), 백제는 적석총과 돌방무덤, 양(梁)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고분(전축분), 신라는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과 돌방무덤, 가야는 수혈식석곽묘(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과 같은 묘제로 대변된다. 5차시에서는 이러한 한자유교문화, 불교문화, 고분 등의 테마를 중심으로 삼국과 가야 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 요약하기

한국의 선사시대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시대로 나뉘며, 토기를 중요한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기원전 3~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까지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나라들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국가들을 짚어본다.

고구려백제신라와 가야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문화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삼국과 가야의 역사를 살펴본다.

5.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